

2008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정시모집 논술 문제

감독관확인

수험번호 :

성 명 :

문 제

제시 자료 (가)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나)의 박 교사가 처해 있는 문제 상황과 관련지어 고찰해 보고, 그 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에 관해 (다)와 (라)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14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50점]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400자 내외(±80자)로 작성할 것.
- ☑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작성하며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하지 말 것.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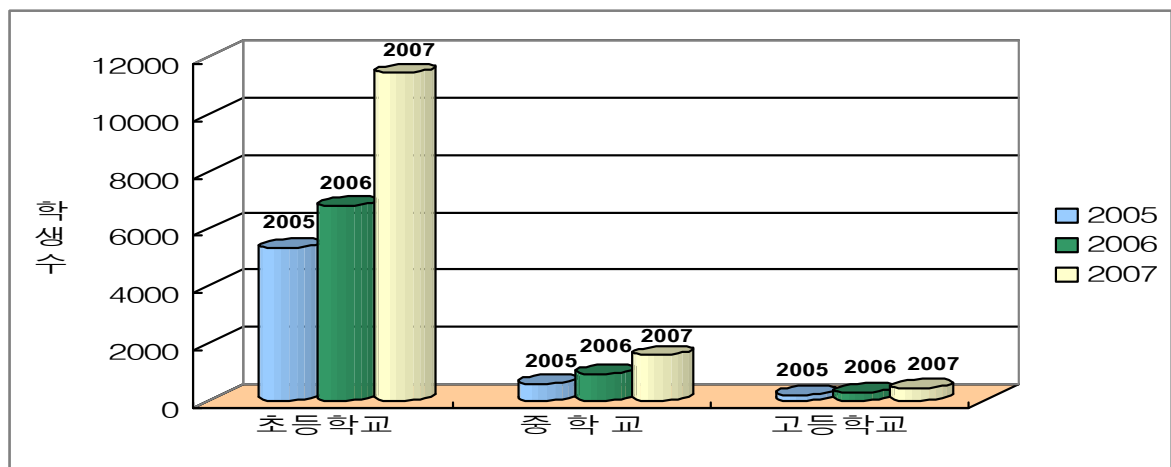
□ 연도별 국제 결혼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총혼인건수대비 구 성 비	3.7	4.8	5.2	8.4	11.4	13.6	11.9
한국남자 + 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구 성 비율	59.2	65.6	69.2	74.8	72.2	72.3	76.1
농림어업 한국남자 + 외국여자	-	-	-	-	1,814	2,885	3,525
구 성 비율					27.4	35.9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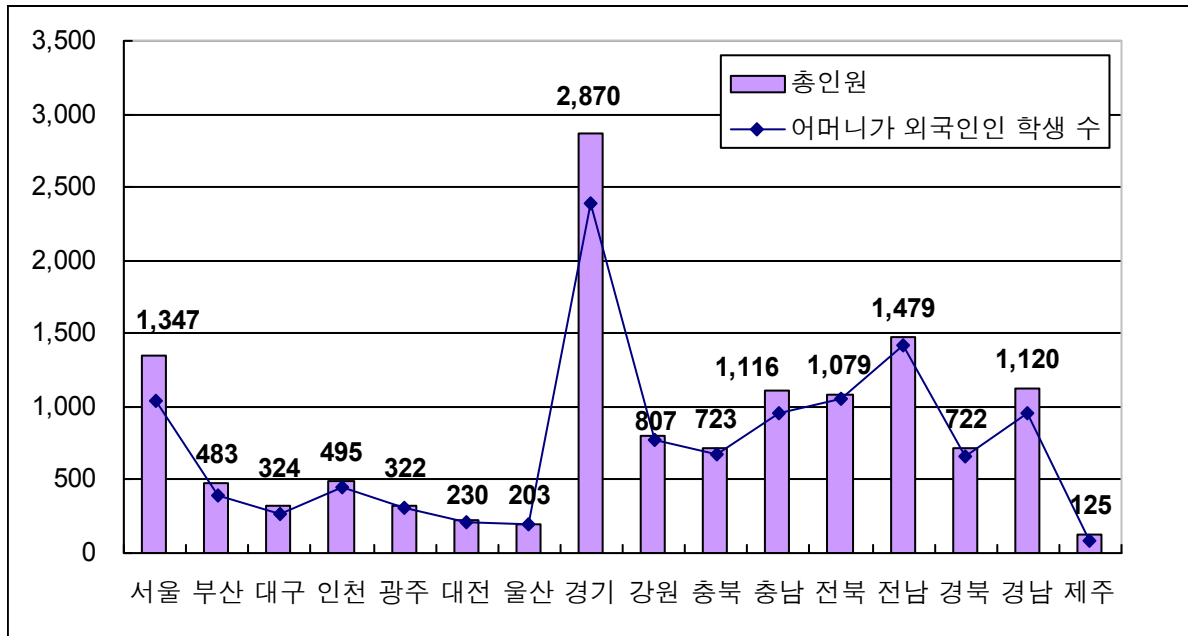
(통계청, 2006)

□ 국제 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재학생 수



(교육인적자원부, 2007)

□ 국제 결혼 가정 자녀(재학생) 지역별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2007)

(나)

이제 막 교대를 졸업하고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해서 2학년 담임을 맡게 된 박 교사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학급 인원 20명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무려 5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김슬기, 이아람…… 이름이나 국적은 틀림없는 한국 아이이지만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가 달라 한눈에도 외국 아이들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이 아이들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 편이지만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어머니 밑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2학년인데도 아직 한글조차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했다. 더욱이 같은 반 녀석들이 서로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이유 없이 놀려대거나 왕따를 시키는 바람에 반 분위기를 다잡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아이들을 타이르면서 박 교사 자신도 자기 안에 ‘서로 다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정의의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 각자는 다른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불평등의 원칙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기회 평등의 원칙으로서 한 사회의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에 결부되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한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지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접근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차등의 원칙으로서 한 사회에서 허용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차등의 원칙은 보상의 원칙에 의해 선정되는 고려 사항들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원칙으로서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의 불평등은 부당한 것임으로 이러한 불평등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칙이 주장하는 바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즉 진정한 기회 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는 마땅히 보다 적은 천부적 자질을 가진 자와 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 태어난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보다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우연적 여건의 불편 부당성을 보상해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게 되면 적어도 어느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저학년 동안만이라도, 지능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의 교육에 더 많은 재원이 소비될 것이다.

예를 들어, 차등의 원칙은 교육에 재원을 할당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최소 수혜자(the least advantaged)의 기대치를 향상시켜 주게 된다. 교육의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회 복지만을 통해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사회의 문화를 향유하도록 해 주며 그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각자에게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함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천부적으로 혜택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사용해야 한다.

- J. Rawls, *A Theory of Justice* -

(라)

관용이란 소극적 인정과 방임을 넘어 다른 종류의 사고 방식과 행위 양식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승인하는 태도를 말한다. 개인적 태도로서의 관용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 · 도덕 · 정치적 입장이나 세계관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다. 모든 규범과 가치의 상대성을 내세우는 관용은 허무주의의 구실이 될 뿐 진정한 관용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관용의 전제 조건이다. 또한 관용은 모든 것을 관대하게 대하는 중립적 관찰자의 태도가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 안에서도 가능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관용은 어떤 인간도 결코 오류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통찰과 모든 사람은 자기 관점에 얽매일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관용의 정신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 그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진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하는 데 기반을 둔다.

그러나 관용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관용을 반대하고, 불승인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거나 금지하고 싶고, 방해하고 싶은 어떤 대상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대상이 존재할 때에만 관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단지 반대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소극적 관용), 관용의 대상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적극적 관용). 그러나 만약 우리가 관용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용납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관용의 역설)이 발생한다. 결국 관용은 불관용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용의 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용과 불관용의 경계 설정의 필요성이 요청된다.